

데스크 시각



윤영기 체육부장

새터민이자 국가대표 리듬체조 상비군 감독, 체육계 최초로 '미투(Me too)'를 감행한 용기 있는 사람. 이경희 감독이 광주에 왔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문득 궁금해진 게 있었다. '왜 광주를 택했을까?' 그를 만났을 때 의문은 바로 해소됐다. "광주에는 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를 치른 국제적인 인프라가 있어요. 선수가 좋은 환경을 경험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니까."

국가대표 리듬체조 선수단의 광주 방문은 지난 2015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U대회)를 비롯해 올해까지 네 해째 계속되고 있다. 이번에는 국가대표 후보 선수 12명이 이 감독과 함께 와서 지난 7월 말까지 20일 동안 광주에서 태극마크의 꿈을 키웠다. 이들이 머문 광주여대 시립유니버시아드체육관은 지난 2015년 U대회 때 지어졌다. 리듬체조 선수가 불과 리본을 마음껏 던질 수 있는 12m 높이 경기장에다 구름성 좋고 피봇(pivot·회전동작)에 잘 먹히는다고 알려진 독일제 스피치(spich) 매트가 있다. 시가 4000만 원대

광주 '스포츠 유산' 어떻게 할 것인가

인 이 제품은 FIG(국제체조연맹)가 공인한 매트다. 올림픽, 아시아대회, 세계체조선수권대회 등에서 두루 쓴다. 선수들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국제공인 연습장은 없는 셈이다. 국가대표 상비군이 체육관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강원도 양구를 마다하고 광주를 찾은 이유다.

수영대회 레거시 좋지만

광주여대 시설관리팀 최기영 팀장은 체조 전용 매트 관리의 달인이다. 최적 상태로 보관하기 위해 4년째 공을 들이고 있다. 매트 밑에 까는 합판의 탄성을 유지하기 위해 합판과 합판 사이에 받침목을 넣어 쌓아 두었다가 다시 꺼내 건조하는 번거로운 일을 묵묵히 해내고 있다. 리듬체조 선수단이 머물 때면 가로·세로 1.2m짜리 합판을 두 개 층으로 포개 도합 242장을 깔고 그 위에 매트를 감쪽같이 까는 일도 그의 몫이다. 눈썰미 있는 그는 어깨너머로 배운 기술 덕분에 전문 스포츠사에 맡기지 않고도 능히 해낼 수 있다. 그의 손길이 없었으면 최상급 매트는 평범한 카펫이 됐을 것이다. U대회 자산은 이렇게 살뜰하게 관리되고 '광주를 마케팅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U대회 때 지어진 광주국제양궁장은 국내보다 외국 선수에게 더 인기 있는 공간이다. 국제경기장 최소 공인 규격은 72명이 일제히 서서 쏠수 있는 72개 사

대(射臺)지만, 광주에서는 144명까지 사대에 설수 있다. 창문을 열고 활을 쏠수 있는 실내 사대까지 갖추고 있어 전천후 경기와 훈련이 가능하다. 예전 진호양 공장, 청주 김수녕양궁장, 전북 오수양 공장 등이 국제양궁장이지만 광주는 차별화한 장점이 있어 국내외 선수 가리지 않고 선호한다. 도심에 경기장이 있어 숙식을 어렵지 않게 해결하고 관광·쇼핑에 나설 수 있으며 경기장과 속소를 오가며 대비하는 시간도 상대적으로 적다.

김성은 광주양궁협회 전무는 국제양궁계 인맥을 활용해 광주를 팔고 있다. 그는 U대회 개최 이듬해인 2016년 일·분·중·국·스페인 선수단의 전지훈련을 광주로 유치했다. 일본·중국 선수단은 매년 찾는 단골이 됐다. 중국 선수단은 지난 1월과 6월 두 차례나 광주에서 전지훈련을 했다. 최소 50명에서 150명에 달하는 해외 선수단은 보름 혹은 한 달 가량 광주에서 돈을 쓴다. 김 전무는 친분으로 선수단을 불러들였지만 양궁장 임대 사용료나 숙박비에는 전혀 예누리가 없다. 광주 경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다.

편중과 쓸림은 경계해야

시민들의 관심 밖에 놓여 있었지만 지난 5월 진행 국제테니스장에서는 남자프로테니스(ATP) 광주오픈 챌린저 4회째

대회가 열렸다. 광주시와 광주테니스협회가 유치한 이 대회에는 선수단 400여 명이 참가했다. 역시 U대회를 계기로 건립한 경기장과 이를 활용하려는 이들의 열정과 노력이 있었기에 유치가 가능한 국제대회였다. 챌린저 대회는 조코비치(1위·세르비아)도 무명 시절에 메이저대회 출전 기준이 되는 랭킹 포인트를 쌓기 위해 출전했던 무대로, ATP 홈페이지에서 생중계됨으로서 광주 경기 장면을 전 세계 테니스 팬이 시청할 수 있었다.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가 끝나자 광주시는 국제 규격의 수영장과 훈련 시설을 갖춘 광주수영진흥센터 건립과 함께 전국 규모의 수영선수권대회와 동호인 마스터즈 대회를 창설하겠다고 밝혔다. 수영 대중화를 이끌어 '수영 도시 광주'를 만들어 나가겠다는 구상이다. 이른바 국제대회 개최 효과를 지역 발전 동력으로 삼으려는 레거시(Legacy·유산) 사업이다.

하지만 광주시가 추진하겠다는 이러한 레거시 사업을 보면서 한 가지 걸리는 대목이 있다. 수영도시 조성에만 행정력을 쏟아붓는 편중과 쓸림이다. 광주여대 시립유니버시아드체육관과 광주국제양궁장 등을 중심으로 싹튼 유·무형의 레거시는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균형 발전이 핵심인 엘리트·생애·학교체육 등 생태계를 조성하는 일은 어찌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 꼬리를 문다. /penfoot@kwangju.co.kr

은편칼럼

'보육교사 수호천사' 제도 필요하다



류동훈 (사)광주전남행복발전소 정책위원장

지난해 우리나라 출산율이 0.98명(광주 0.97명)으로 떨어져서 OECD 36개 회원국 중 유일하게 1명도 안되고 있는 심각한 상황에 최근에 광주시가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광주' 만들기 첫 번째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24시간 광주 긴급 아이 돌봄센터 개소, 10월 중 광역단체 최초로 입원 아동 돌봄 서비스 지원 실시, 아이 키우기 좋은 광주만들기 실천본부 설치 등이다. 아열 수 없이 밤에 아이를 맡겨야 하는 사립들에게는 큰 도움이 되리라 본다.

입원 아동 돌봄 서비스도 광산구에서 먼저 실시하기는 했지만, 광주시 전체로 확대되어 시민들 전체가 혜택을 누리려면 참으로 좋은 일이다. 특히 1년 동안

서비스 지원 한계 시간을 200시간 이상 파격적으로 늘려서 광주시에서 이용 실적은 많이 늘린다면, 전국으로 이 제도가 확산되고 국가 사업으로 발전해 오히려 광주시나 구 예산이 절약되는 시기를 앞당길 수 있을 것이다. 아동 병원뿐만 아니라, 정형외과 등 일반 병원, 종합 병원에서도 함께 홍보가 이루어지면 효과가 높을 것이다. 이런 아이디어들은 아이 키우기 좋은 광주를 창조적으로 만들어 갈 수 있는 참신한 시도들이고, 이를 현실화 시킨 조직자들에게 박수를 보낸다.

여기에 더해해서 광주시와 각 자치구는 '보육교사 수호천사' 제도 도입을 한 번 검토해 보면 좋겠다. 몇 년 전 한 어린이집 원장님께서 "어린이집 선생님들은 다른 집 아이들은 열심히 기르며 보살피고 있지만, 정작 자신들의 아이를 낳아서 기르는 데는 어려움이 많다. 아이를 낳으려 들어가면 그동안 대체 보육교사를 구하기도 어렵고, 또 대체 교사가 들어와서 정착해 버리면 나중에 자신이 아이를 키우고 나서 복귀하려고 해도 설자리가 없어 다른 자리를 알아봐야 하고, 아이를 낳고 오면 경력이 단절되어 보육교사로

다시 진입하기가 쉽지 않다"고 전했다. 이로 인해 보육교사들이 쉽게 아이를 못 낳고, 출산을 마루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초등학교 교사들은 출산이나 보육 기간 동안에 육아 휴직을 마음 편하게 하고, 그동안에는 기간제 교사들이 자리를 채우고, 나중에 육아 휴직기간이 끝나면 안정적으로 복귀할 수 있다. 보육교사들도 이처럼 육아 휴직을 편하게 쓰고, 안정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보육교사 수호천사' 제도를 만들어 운영하자는 것이다. '보육교사 수호천사'는 경력 단절 보육 교사를 가운데 모집하여 아동 보육에 대한 보수 교육을 실시하고, 협동조합이나 사회적 기업으로 만들어 인력 풀을 준비한 후 어린이집에서 교사를 필요로 하면 기간제로 파견하여 근무하는 제도로 제안하는 것이다.

지금 광주시에서도 보육교사들이 신혼여행 같은 것을 가서 며칠을 빠지면 채워주는 긴급 파견 제도가 있지만, 1~2년 가는 육아 휴직 기간을 지원해 주지 않는다. 보육교사 수호천사들은 원래 있었던 보육교사가 육아 휴직을 마치고 복귀를

하면 다시 다른 곳으로 파견 나가서 보육교사 수호천사 역할을 하여 주는 것이다.

지난해 기준으로 광주시 어린이집은 1195개이고, 어린이집 종사자 수는 33만 3420명이며 이중 보육교사는 23만 9996명이다. 24만 명에 육박하는 보육교사가 있기 때문에 어린이집과 유기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행정에서 운영과 홍보를 지원한다면 안정적으로 충분히 성공시킬 수 있다. 나중에 아이를 낳아 기르고 경력 단절에서 복귀하여 부담 없이 일하고 싶은 보육교사들은 수호천사로 활동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이 제도에서 주목할 것은 바로 어린이를 키우는 보육교사들의 노동을 귀하게 여기고, 사회와 정부가 이를 풀어안으며 자부심을 키워주는 것이다. 어린이집 원장님들도 사회 전체적으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나온 정책이니 이 정책이 성공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할 것이다. 이에 대해 보육교사와 관계 공무원, 어린이집 원장님 등 관계자들이 모여서 더 발전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아이디어를 만드는 논의의 장이 열리면 좋겠다.

기고

초등생 화장, 반대보다는 올바른 지도를



전현진 호남대학교 뷰티미용학과 교수

인간의 아름다움을 표현하기 위한 가장 보편적인 수단 중의 하나가 화장(化粧)이다. 사람들은 화장을 통해 인체의 아름다움 부분은 돋보이도록 하고 약점이나 추한 부분은 수정 혹은 위장하고 싶어하는 본능적인 욕망을 지니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미남·미녀를 존송(尊崇)하는 생활 사상으로 인해 아름다움과 청결을 중시함에 따라 일찍이 삼국 시대부터 화장과 화장품이 발달하였다. 이러한 화장은 오늘날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자신의 외모와 이미지를 관리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되고 있으며, 대상과 상황에 따라 다양한 화장 기법과 화장 문화가 발생하고 확산되고 있다.

그중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화장의 대상이 성인 여성뿐만 아니라 초등학생, 미

취학 아동으로부터 확대되고 있다는 것이다. 작년 녹색소비자연대 조사에 따르면 국내 여자 초등학생의 42.7%가 화장을 한다고 했다. 특히 초등학교 고학년(5·6학년)의 경우 외모 감수성이 예민해지는 시기로, 외모를 통해 자신의 존재감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또래 집단의 수용과 평가에 민감하기 때문에 외모를 매력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화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더욱이 최근 각종 인터넷 사이트와 유튜브, SNS 등을 통해 초등학생을 겨냥한 다양한 화장법이 소개되고 있으며, 저렴한 조저가 화장품 전문점뿐만 아니라 문방구, 편의점, 생활용품 전문업체 등에서 손쉽게 각종 화장품을 구매할 수 있기 때문에 초등학생의 화장 문화와 시장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초등학생들까지 화장 문화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현상에 대해 일부 어른들은 초등학생도 자신의 개성과 멋을 뽐낼 뿐만 아니라 화장 비법을 공유하면서 하나의 놀이 문화나 즐거움의 표현으로 바라보는 긍정적 시각이 있다. 그러나 많은 어른들은 초등학생의 화장 문화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나타내고 있다. 그 중 대부분은 초등학생이 화장에 집중을 하게 되면 깨끗함과 귀여움을 잃게 되고 외모에 지나치게 집착하게 되어 학업과 대인 관계를 소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더욱이 값싼 화장품을 사용해서 나빠진 피부를 가리기 위해 또다시 화장을 하게 되면 악순환이 반복되어 오히려 육체적·정신적 건강을 해칠 뿐만 아니라 나아가 사회적 관계까지 어렵게 될 수도 있다.

이처럼 초등학생의 화장을 바라보는 시각은 어른들에 따라 다르다. 이제 시대가 바뀌었다. 초등학생의 화장을 무조건 나쁘다고 비판하거나 제재하기 보다는 과거와 달라진 초등학생들의 화장 문화를 이해하고 올바른 화장법을 교육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또래들이 제공하는 잘못된 정보나 인터넷을 통한 부분별한 화장 정보에 노출되지 않도록 올바른 화장품 선택과 화장 관리에 대해 학교나 가정에서 지도할 필요성이 있다.

예를 들면 초등학생 아이들의 경우, 성인보다 피부 두께가 얇아 성인용 화장품을 계속해서 사용하면 피부 트러블은 물론 호르몬에도 영향을 미치며 피부염, 피부 건조증을 유발할 수 있다. 또한 초등학생들

은 성인보다 연약한 피부를 가졌기 때문에 피부 질환이 더 쉽게 발생할 수 있어서 화장을 깨끗하게 지울 수 있는 올바른 세안법을 알려주고 꼼꼼하게 세안할 수 있도록 지도가 필요하다. 꼼꼼하게 세안을 하지 않을 경우 탐이나 노폐물, 먼지 등이 모공에 쌓여 트러블을 일으키기 때문에 피부에 남아있는 잔여물을 깨끗하게 제거하는 것이 좋다.

한편, 초등학생들은 경제적인 이유로 저가 화장품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어 그들이 사용할 수 있는 안전하고 경제적인 화장품 브랜드의 개발이 필요하다. 아울러 초등학생들이 주로 구입하는 화장품의 안전 관리를 강화하고 아동에게 유해할 수 있는 물질의 성분을 표시하고 제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초등학교 학생들이 화장을 하기 전 위생과 청결, 피부 보습에도 신경을 쓸 수 있도록 제품 교육과 화장 기법에 대한 가정 및 학교에서의 교육도 필요할 것이다. 끝으로 화장품의 안전성을 제도적으로 강화하고 화장 인식과 화장 행동을 통하여 나타나는 그들의 사회적·심리적인 부분을 이해하며 진정한 아름다움에 대한 가치관을 키워줘야 할 것이다.

社說

'5·18 진상조사위'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하나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이 시행된 지 1년이 다 돼 가지만 그 핵심인 5·18 진상조사위 출범은 여전히 안갯속이다. 조사위원 자격을 놓고 공방을 벌여 온 여야가 법률 개정에 합의했지만 이에 대한 심사가 기약 없이 미뤄졌기 때문이다.

국회 국방위 법안심사소위는 그제 백승주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5·18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 등 계류 법률안을 심사할 계획이었으나 다른 일정 등을 이유로 돌연 취소했다. 개정안의 골자는 그동안 5·18 진상조사위 구성의 발목을 잡아 온 조사위원 자격에 '군 경력 20년 이상'을 추가하는 것이었다.

5·18 진상조사위 위원은 국회의장이 한 명, 여야가 각기 네 명씩을 추천해 대통령이 임명한다. 한국당은 지난 1월에 야 세 명을 추천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그중 두 명이 조사위원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임명을 거부했다. 이에 한국

당은 군 출신을 염두에 두고 군 경력만 있어도 조사위원 자격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다.

국방위도 5·18 진상규명 범위는 군과 관련된 내용이 많아 장기 복무 군인이 조사위원으로 참여하면 기여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공정성 우려에 대해선 특별법상 불공정 위원을 제척 또는 기피해심·의결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활용하면 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개정안에 대해서는 여당과 5월 단체도 부정적이지 않은 상황이라고 한다. 지난 1년 동안 그랬던 것처럼 위원 자격 시비로 시간을 허비하기보다는 진상조사위 출범이 더 시급하기 때문이다. 5·18 40주년이 8개월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발표 명령과 민간인 학살, 행방불명 등에 대한 진상 규명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되고 있다. 정치권은 조사위가 하루빨리 출범해 진실을 밝히는 활동에 나설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수천억 원 쏟고도 요원한 동물복지형 축산

전남도가 밀집 사육과 비위생적 축사 환경 개선에 수천억 원을 지원하고 있는 데도 동물복지형 축산 농가 수는 기대만큼 늘어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전남도는 전국 최초로 동물복지형 축산 조례까지 만든 바 있는데, 지금까지 조례에 규정된 사육 기준에 맞춰 '전남도 지정 동물복지형 녹색축산농장'으로 선정된 농가는 지난 2012년 이후 173농가에 그치고 있다.

그나마 2017년부터 선정된 농가를 대상으로 300만 원씩 장려금을 주는 제도를 시행하면서 지난해 81곳, 올 들어 32곳이 추가되는 등 다소 늘었다. 하지만 전체 사육 농가에 비하면 선정된 농가 수는 많지 않다. 오리의 경우 전체 249 사육 농가 중 3.6% 수준에 그치고 있으며 한우는 전남 1만 7354 농가의 0.5%, 돼지는 546 농가의 3.3%밖에 안 된다.

전남도는 지난 2011년 5월, 축사에 방역 목적을 만들고 사육 밀도를 적정하게 유

지하게 하는 조례를 전국 최초로 만든 바 있다. 이 같은 조례를 근거로 전남도는 최근까지 '축사 시설 신축 및 개보수 비용'으로 517 농가에 829억 원을, 2009년부터 2017년까지 '축사 시설 현대화' 사업이라는 명칭으로 1353개 축산 농가에 2562억 원을 쏟아 부었다.

이렇게 막대한 돈을 투입했지만 성과는 미미했다. 농가들이 동물복지형 축산을 꺼리는 이유는 사육 밀집도를 낮추고 가족 운동장을 만드는 데 많은 비용을 투입하더라도 시장에서 제값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동물복지 인증이 활성화하려면 농가 소득이 보장되는 한편 소비자가 가치를 인정하고 적정 가격을 지불하는 체계가 정착돼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동물복지 인증 농장의 초기 투자 비용과 생산비 증가를 보전하도록 정부 지원을 늘림으로써 농가 소득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無等鼓

2005년 5월 9일, 여든의 노신사를 비롯해 일본인 열 명이 경기도 남양주시 흥릉 명성황후 무덤 앞에 무릎을 꿇었다. 이들은, 1895년 명성황후를 시해한 일본인 자객들의 후손이었다. 울미사변이 발생한 지 110년 만에 조상을 대신해 용서를 구한 것이다.

"어렸을 때는 할아버지가 한 일이 애국이라 생각했지만, 자라면서 할아버지의 행동이 잘못 났음을 알게 됐다." 이들은 속죄의 눈물을 흘렸다. 그러면서 "할아버지가 지은 죄를 대신 사죄하고 늦었지만 할 수 있는 일을 무엇이든 하겠다"고 다짐했다.

후손들의 사죄

사과는 일회성에 그치지 않았다. 이들은 해마다 한국을 방문해 조상들의 과오를 반성하며 속죄의 눈물을 흘리고 있다. '명성황후를 생각하는 모임'을 중심으로 명성황후 시해 사건의 진실을 일본에 알리고 울바른 역사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힘을 모으고 있다. 방문단을 이끌던 가와노 다스미 씨는 2012년 90세로 생을 마감하면서도 후손들에게 '대를 이어 참회하라'는 유언을 남겼다. 고흥 황제와 명성황후 후손들은 가해자 후손들의 진심 어린 속죄에 마음을 열고 2017년 구마모토를 찾

아 가와노를 추모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장남 노재현 씨가 5·18민주묘지를 찾아 사죄했다. 전두환과 함께 5·18을 무력으로 진압하고 정권을 잡은 아버지를 대신에 5월 민주 영령들 앞에 무릎을 꿇었다는 점에서 신성한 목소리로 들린다. 신군부 관계자는 물론 직접 가족 가운데 광주를 찾아 사죄한 사립계 가족 가운데 광주를 찾아 사죄한 자들은 그가 처음이기 때문이다. 노 씨는 방명록에 "진심으로 희생자와 유족분들께 사죄드리며 광주 5·18민주화운동의 정신을 가슴 깊이 새기겠습니다"라고 적었다.

하지만 노 씨의 사죄가 진심으로 읽히기 위해 해선 가해 당사자의 직접적인 사과가 필요하다. 속환으로 거동이 힘든 노태우는 그렇다 치더라도 반성은커녕 5·18을 왜곡·뻔뻔하고 있는 전두환과 그 후손들의 속죄가 있어야 한다. 용서는 속죄가 이뤄진 뒤에 가능한 일이다. 가해자들이 속죄를 하고 사실을 인정한다면 끊이지 않는 5·18 왜곡 논란도 사라질 것이다. 명성황후 시해 가해자와 피해자의 화해가 주는 의미를 되새겨 본다.

/장필수 전남본부장 bungy@

Table with 2 columns: 光州日報 and The Kwangju Ilbo. Includes contact info, subscription rates, and address.